

오늘의 날씨와 생활

1월 18일 월요일 음 12월 6일 (13물)

기상정보

대체로 흐림

대체로 흐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4℃, 낮 최고기온은 9~10℃로 전망된다. 중산간 이상에는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다. 밤 사이 눈이 내린 중산간 이상에는 내린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으니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오전	강수 확률	오후
30%	제주	10%
20%	성산	10%
30%	고산	10%
30%	서귀포	10%

주간예보

<문의 ☎ 국번없이 131>

내일

맑음

1/6℃

모레

맑음

3/13℃

생활·안전 기상정보

☀ 해돋이 07:37

☁ 달뜨기 10:57

☀ 해진 17:52

☁ 달지기 22:53

🌊 물때 만조 01:31

🌊 간조 08:04

🌊 14:14

🌊 20:58

월드뉴스

얼음 밑에서 85m 수영 ‘세계 신기록’

러 40대 여성 1분 50초간 잠수

러시아의 40대 여성이 두께 25cm의 공공 얼어붙은 시베리아 바이칼 호수의 얼음판 아래에서 1분 50초간 잠수한 뒤 85m를 수영해 화제다.

경이로운 도전에 성공한 주인공은 올해 40살인 모스크바의 다이버 예카테리나 네크라스바다.

러시아의 영문 매체인 모스크바 타임스와 러시아 루데이 등에 따르면 그는 러시아 정교회의 성탄절이었던 지난 7일 바이칼호에서 매년 열리는 수영 대회에 참가, 물속에서 1분 50초 동안 수영복만 입고 85m를 성공적으로 이동했다.

바이칼호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가장 오래된 담수호로도 유명하다.

네크라스바는 사다리를 통해 물속으로 내려간 다음 케이블에 표시된 경로를 따라 유유히 헤엄쳤다.

당시 물속 밖의 온도는 섭씨 영하

얼음 밑에서 수영하는 네크라스바.

22℃였다.

성공적으로 도전을 마친 네크라스바는 물안경을 벗고 환하게 웃으며 동료들에게 손으로 ‘OK’ 사인을 보냈다. 네크라스바의 도전 모습은 그의 동료들이 촬영한 동영상에 생생하게 담겨있다.

동료들은 “85m야! 세계 신기록이야!”라고 소리치며 환호했다.

그는 이번 도전을 위해 모스크바의 따뜻한 수영장에서 일주일째 4차례 훈련했으며, 2차례는 실제 얼음 구멍에서 다이빙 연습을 했다고 CNN은 전했다.

연합뉴스

백록담

고 대 로
경제산업부장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처리가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현재 마지막 칼자루를 쥐는 국회의원들이 4·3법안들의 처리를 뒤로 하고 정권창출을 위한 선거에만 혈안이 될 경우 2월 국회통과는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2000년 1월 ‘국민의 정부시절’ 제주4·3특별법 제정이 이뤄진 후 진상조사는 어느정도 이뤄졌으나 4·3 희생자 배·보상문제는 지난 2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을 벗어나지 못했다.

지난해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합의점을 찾으면서 이제야 급물살을

“4·3특별법 개정안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

탄 상태이다. 그동안 1조5000억원에 달하는 예산(4·3희생자 배·보상금) 때문에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면서 지난 20대 국회에서는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도 못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당·정협의를 통해 ‘국가는 제13조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강구하며, 필요한 기준 마련을 위해 노력한다.’ 부대의견으로 ‘국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위자료 등의 재정지원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한다’고 수정안에 명시하면서 4·3희생자 배·보상문제는 한발짝 더 나아가게 됐다. 법안에 ‘위자료 등의 특별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제성을 담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대목이지만 그래도 배·보상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동안 대선 후보들마다 ‘4·3희생자 배·보상’을 약속했지만 선거 때마다 나오는 ‘제주4·3 단골공약’에 그쳐 왔다.

특히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제주4·3 문제가 하나둘씩 해결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제주4·3참극을 자행했던 이승만 정권의 후손인 보수정권이 집권하면 정제되거나 4·3의 역사를 되돌리려는 시도가 끊임없이 반복돼 왔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나라당 대선 주자였던 2007년 4·3위령제단을 참배해 ‘제주4·3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어느당이 집권해도 바뀌지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수단체에서 4·3관련 망언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은 재임 당시 ‘제주4·3추념일’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던 행사를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로 격상시켰다. 하나 박 대통령도 제주 4·3희생자 배·보상은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100대 국정과제로 삼고 오영훈 의원 등이 주도를 하면서 이 만큼의 성과를 만들어 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우려되는 것은 민주당이 2월 임시

국회 4·3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지만 여권이 그리 녹록치 않다는 것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치권에서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2022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다. 4월 보궐선거가 끝나면 차기 대권주자들은 대선체제로 돌입하게 되고 시장 선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요동을 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선거에 올인하면 4·3개정안 처리는 점점 관심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국회처리는 무기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오영훈 국회의원과의 나연 민주당 대표가 구심점을 잡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길 바란다. 정권이 바뀌면 4·3희생자 배·보상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우려가 높다. 차기 정부에서 4·3희생자 배·보상 문제 관련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제화는 이뤄져야 한다.

열린마당

2050 탄소중립 실현 위한 제주의 쟁점들

김 재 연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2020년 한해 화두라고 한다면 코로나 19와 기후 위기의 심각성, 탄소중립으로 대전환일 것이다. ‘경제’가 아닌 ‘환경’이 이슈가 된 2020 세계경제 다보스 포럼, 한국판 뉴딜 발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선언이 있었다.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에너지 생산과 소비에 있어 저탄소 경제사회로 전환 가속화이다. ‘카본 프리 아일랜드(CFI) 2030’ 프로젝트가 그것이며, 이는 정부가 발표한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인 그린 뉴딜의 주요 핵심사업들이다. 저탄소 정책 추진 노력의 결과로 2019년 제주 재생에너지는 전력생산 비중의 14%, 전기차 2만대 돌파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게 됐다.

제주에는 그동안 추진해 온 CFI 2030 프로젝트를 바탕으로 새로운 성장의 기회를 얻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고 있다. 이는 ‘그린 뉴딜 선도지역’ 추진으로 2025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 에너지 생산·저장·판매 자유화 등과 관련된 세부 실행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20년 하반기부터 전문가 및 실무 TF를 구성해 관련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및 세부 과제 기획 등을 추진해 오고 있다. 구체화된 사업과 제도 개선 사항들은 올해부터 중앙부처 사업 및 계획 등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이다.

정부의 그린 뉴딜 전략과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향후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역할과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기후변화 대응과 경기부양을 동시에 달성할 핵심 수단으로 여기고 있다. 이런 변화 속에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제주가 가진 강점과 잠재력을 잘 활용하여 새로운 방식과 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한 쟁점들을 하고 있다.

만 18세 보호종료아동, 홀로서기 위한 바람

변 성 한
시온빌 자립생활관장

지난달 28일 광주의 보육원에서 생활하던 고교생이 퇴소를 앞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이 있었다. 부모의 부재, 학대 등의 이유로 보호대상아동이 되면 보육원 등의 양육시설에 들어가거나, 위탁가정에 위탁 또는 입양되게 된다. 그리고 만 18세가 되면 보호조치는 종결돼 시설이용 아동은 시설을 퇴소해야 하고 가정위탁의 보호체계에서 있던 아동에 대한 지원은 끊기게 된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제주에서만 매해 50여명(전국 2600여명)의 보호종료아동들이 발생하고 있다. 만 18세에 이르면 생존을 위한 홀로서기를 시작해야만 한다.

다행히 이들의 사회정착을 돕기 위해 자립정착금 500만원과 3년간 매

월 30만원의 자립수당, 자립지원시설 등을 통한 주거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그 외에도 다짐씨앗통장과 후원금 등이 있어 경제적 지원은 결코 부족한 수준이 아니다. 오히려 갑작스레 갖게 되는 큰 돈은 이들을 나태하게 만들 수도 있다. 자립지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확대하는 것도 좋지만 자립역량강화에 초점을 둔 체계적인 관리와 지도가 선행되어야 한다.

보호종료의 기준이 되는 열여덟의 나이도 고려가 필요하다. 적어도 연고자가 없는 경우만이라도 충분히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보호기간을 보장해야 한다. 자립 사각지대의 해소 또한 자립지원이 공백부에 그치지 않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다. 18세가 되어 보호가 종결되지만 중도에 보호조치가 끝나는 경우도 있다. 보편적 지원이 아닌 이상 사각지대 발생은 필연적이지만 눈에 보이는 사각지대를 외면해선 안된다.

보호종료아동이란 사실이 꼬리표가 되지 않도록 편견과 부정, 동정이 아닌 따스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길 기대한다.

양복점 제일사의 약속

모델비례 체형맞춤정장

30년 전통, 고객 체형에 맞춘 재단 원단과 공임만의 마진을 뺀 합리적 가격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회원제 서비스

http://www.cheilsa.co.kr

제주시 이도1동 1180-12 TEL: 722-0914 FAX: 722-9098

최고급복지	맞춤정장	100만	40만
고급	"	80만	35만
보통	"	35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콤비	60만	30만
고급	"	40만	25만
최고급복지	맞춤바지	25만	12만
고급	"	15만	8만
보통	"	10만	6만
와이셔츠	맞춤셔츠	8만	5만

영역신공: AM 9시~ PM 9시 일요일은 쉽니다.

NAVER 제 일 사 검색

제일사

차량 구매 고객님의 한해서 블랙박스 설치해 드립니다!

■ 중고차 매입/판매/수출/폐차/대차 문의해주시면 365일 연중무휴 정직하게 알아봐드리겠습니다.

- 부재중일시 문자 남겨주시면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고객님의 타고 계신 차량 최고가 매입!

☑ 매입 평균시세보다 최대한 최고 매입시켜 드리겠습니다.

☑ 제주도전지역 어느곳이든 출장견적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 차량 연식/키로수만 아시고 계시면 금액 산출 가능합니다.

■ 차량해의수출 가능합니다.

- 폐차/매매상에서 매입을 꺼려하는 차량은 수출쪽을 알아봐드리겠습니다.(최고견적)

믿고 맡길 수 있는 정직한 중고차 빠르고 정성으로 모십니다!

정성자동차

성심껏 상담해드립니다 언제든 연락주세요

문의 ☎ 010-3620-1810

팀장 이 건 영